

치사

불기255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수승한 법음이 널리 퍼지는 가운데 불교미술명인전을 개최하게 되어 반가움과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불교미술은 전통문화의 근간이자 선조들의 뛰어난 솜씨와 장인 혼을 담고 있는 우리 역사의 숨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예술로 승화하고 고유한 전통문화를 창조하면서, 지금까지 뜻있는 불모들에 의해 그 명맥이 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불모 중에 한 분이신 남진세 명장의 예술세계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남진세 명장은 45년 동안 돌조각이라는 오직 한길만을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작품마다 바르고 한결같은 정진의 성품이 오롯이 배어있고, 45년이라는 세월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과 가슴에만 담았던 사연들이 부처님의 형상으로 승화되어 많은 불자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남진세 작가는 우리나라 전통의 기법을 고집하는 그야말로 지정(至情)한 석불의 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디찬 돌덩이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표현하고자 무수히 내려치는 망치의 정다듬이에 그의 정신은 불모의 혼으로 드러납니다.

전통의 기법만을 고수해 온 남진세 명장의 45년 외길인생에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불모로서 영원히 기억에 남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전시가 불교예술의 반석이라는 뜻 깊은 속에서, 참석 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행복으로 전해지길 축원합니다.

2559년 5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